

경찰·오월단체, 전두환 법정출두 대비 분주

전씨측 부인 동석 신청서...시민단체 등 '분노 퍼포먼스' 준비 옛 도청앞 기념식 코로나로 무산...5월 3단체, 5·18묘지 제안

5·18 40주년 핵심이슈 총정리

5·18 기념식이 최초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릴까. 전두환(89)씨는 정말 광주 법정에 설까. 5·18 40주년을 앞두고 최대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쉽네, 전남도청 앞 기념식 무산될 듯=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1996년) 되고 5·18 묘지가 국립묘지(2001년)로 승격된 뒤, 5·18 기념식은 국립묘지에서만 열렸다. 국가기념일 지정 전에는 이른바 '망월묘지'에서 개최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40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 장소로 전남도청 앞 광장이 거론되는 것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훈처도 여태껏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개최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5월 3단체인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이 22일 광주를 방문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 기념식 장소를 국립 5·18민주묘지로 최종 제안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중론이다.

5월 단체들은 예전 기념식과 달리, 150~200명만 참석할 채 지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훈처가 지역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감안하면, 결국 최소 규모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두환, 광주 법정에 올까=전두환(89)씨가 광주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씨 측이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출석을 신청하면서 광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재판부가 바뀌면서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자칫 오는 27일 불출석할 경우 공교롭게도 다음달 18일 재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가 오는 27일 불출석한 전씨를 상대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18일로 재판 기일을 확정·통보하게 되면 5월 18일, 전씨가 광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도 전씨에게는 부담스럽다. 전씨의 광주 방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경찰도 매일 법원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당장, 최관호 광주 경찰청장과 양우천 광주동부서장 등은 23일 광주지법을 돌며 전씨의 이동경로 등을 둘러봤다. 경찰 병력도 지난해 3월 전씨 출석 당시 500여 명의 수준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월 단체들, 어떤 준비할까=5월 단체들은 우선, 법원을 빙 둘러 소복을 입고 마스크 시위를 펼친다. 정문은 오월 단체가, 후문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전씨를 향한 분노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법원에 쉽게 들여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죄수복을 입고 창살에 갇혀 무릎 꿇고 있는' 전두환 동상도 광주로 옮겨오기로 했다. 재판이 열리는 27일 당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 세우기로 했다.

재판을 앞두고는 청소년·시민사회단체·오월단체가 각각 입장문을 낸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전씨 재판에 대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광장 봉축탑 점등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스트, 광주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기관 선정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2020년 광주시 창업체험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창업체험센터는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특화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학교 안팎으로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데, 광주시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 역

할을 처음으로 지스트가 수행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이다.

지스트는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가정신교육, 디자인씹킹,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멘토링, 3D 프린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창업 교육 및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업을 정신과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혁신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방콕 독서 자랑' 대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집에서 읽고 있는 책 표지를 통해 오는 5월5일까지 '방콕 독서 자랑'을 개최한다.

세계 책의 날은 유네스코가 독서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1995년 제정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도서관 방문이 제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집에서 읽고 있는 책 표지 사진과 간략한 댓글(서평 또는 느낌)을 남기면 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이용권)을 제공한다. 당첨 여부는 5월6일 17시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방역소독·물품 비치...전남교육청 등교개학 준비 박차

전남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등교개학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83억원을 활용해 마스크와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비축물품 구매를 완료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95개 학교에 일시적 관할실을 설치하고 특별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교육당국은 보건용·면 마스크를 비상시에 학생 1인당 2매씩 지급할 수 있도록 비축했으며 일회용 마스크 52만장을 구입해 각 학교에 지원했다. 손소독제와 체온계도 학교당 1개씩 비치했으며 열화상 카메라 역시 학생 수 200명 이상인 383개 학교 모두에 비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독거가구에 전달할 밀반찬 광주 동구 산수1동 직원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사랑채'에서 각뚜기를 담고 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날 담긴 김치와 밀반찬을 희망나눔실천단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만든 에코백에 담아 독거가구에 전달했다.

조선대 일자리센터 AI 플랫폼 활용 입사지원서 작성 지원 '눈길'

온라인 1대1 컨설팅·코칭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 준비하는 조선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입사지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사지원서 뽀개기 비교교과과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실시간 화상 특강으로 입사지원서 작성방법 및 AI 플랫폼 사용법을 안내하며, 2단계는 참여자 실습 입사지원서 작성 단계로 AI 플랫폼을 활용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인사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1:1 컨설팅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첨삭받게 되며, 4단계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1:1 심화 코칭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AI 면접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최근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맞춤형 취업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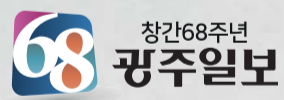
윤오남 센터장은 "AI 플랫폼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했던 학생, 자기소개서 구조화가 필요한 학생에게 최근 취업시장에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합창단 신규단원 20~64세 여성 10여명 모집

광주시 북구가 북구합창단으로 활동할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북구는 내달 8일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합창단원 10여 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64세 이하의 여성으로 매주 화요일·금요일 정기연습과 수시 공연활동에 참여 가능한 주민이며 모집분야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